

작심해야 결실이 있는 법



천운 스님

(광주 향림사 주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욕심을 줄이면 부처님의 지혜가 저절로 생긴다”는 천운 스님. 스님은 이런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 고야. 장애인 등 어려운 중생들을 보살폈다.

설날도 멀지 않았으니 올 한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지 얘기해 볼까?

첫째, 사람들과 화합하며 살도록 노력해. 그러려면 일단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장점을 이야기하도록 해요.

수행자라면 더욱 말이 없어야 하는 거야. 항상 쓸모 있는 말, 필요한 말만 해야 해. 망어·양설·악구 등은 시끄러운 문제의 발단이 되기 쉽.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고, 목적이 뚜렷한 말 빼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엄청 잘하던 어떤 스님이 있었어. 생일 때

들께, 뭐든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잘 되게 돼 있어. 세상 이치가 인연법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좋은 원인에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야. ‘부처님 일은 만사성취’란 말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하면 뭐든지 잘 된다는 뜻이야. 자비로운 마음 갖고 욕심을 줄이면 부처님의 지혜도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런 지혜가 생기면 사람들을 화합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셋째, 내 생활이 양명(陽明)해야 돼. 모두가 내 행실을 알고록 해야 한다는 말이지. 양명치 않으면 사람들이 나의 행실에 의문부호를 붙이지. 그러면 반드시 이상한 소문이 나는 법이야.

예전에 누가 정광학원 이사장 좀 해달라기에 내가 그 학교 소문을 좀 들어봤어. ‘광학고 연애학교 도둑학교’ 이런 못된 소문은 다 불었더구만. 불교학교라 누가 일부러 험담을 했나 하고 이유를 조사해보니 그게 아니야. 틀레 반 받고 선생을 뽑은 거야. 학교 운영을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못 한 거지.

올해는 남을 위해 살아보자

우리 동국대도 옛날에는 최고 수준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잖아. 특히 교수 수준이 조금씩 낮아진 데는 그만큼 원인이 있는 거야. 나는 선생 뺐을 때 돈 갖고 온 놈은 자적이 없다고 해 버려. 그 놈은 돈 욕심으로 왔거든. 5-6년 정도 선생을 바르게 뽑으니까 이제는 정광학원에 대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졌지.

넷째,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해. 남을 위한 일을 하란 말이야. 올해가 다행인데, 다행이란 놈은 남을 위한 일을 하지, 자기 위한 일을 하는 거 봤어? 노상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꼬끼오 읊잖아? 다행이란 남을 위해서 살아봐.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금강경>에 잘 나와 있어. <금강경>의 요지는 다 떨어버리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한 것은 세상만사가 ‘무유정법(無有定法)’이기 때문이야. 자, 지금 내가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이 공기는 네 것이고 저 공기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무유정법이기에 때문에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바로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도 여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8>



가족을 불러 모으는 네가지 방법

어느 해인가 명절날 큰집에 가지 못하고 오두마니 집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호젓하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만 옆집 가족들의 왁자한 웃음소리가, 전 지지는 기뻐 뺨세가 창을 타고 흘러들자 왠지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어 쓸쓸한 감상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날 집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가는 평소 그 집안의 가정이나 주부가 어떤 마음씀씀이로 일가친척을 대하왔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단적으로 ‘모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법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수취(수취)라는 이름의 한 장자가 5백 명의 장자를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수많은 권속을 거느린 장자를 감탄하시며 그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롭게 베풀라(惠施)· 사랑이 담긴 말을 하라(愛語)· 이익 되는 행동을 하라(利行)· 행동을 같이 하라(等利, 同事)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네 가지로 사람들을 포

말· 좋아할 만한 말이고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건네는 말로 사람들을 거두는 일이다.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귀를 기울여 법을 듣게 하고 언제 어느 때나 법을 설하고 가르쳐 주며 바른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이를 평등하고 가깝게 거두어 주며, 친근히 하면서 따르게 하는 것을, 사랑이 담긴 말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라 한다.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깊은 병이 들었거나 재앙을 만나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통이 있으면 곧 그곳으로 가서 자비심을 일으켜 몸과 말로 방편을 제공하고 보살피고 구제하는 이로써 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그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믿지 않는 이를 권하여 믿음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요, 파계한 이를 달래고 인도하여 계율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며, 인색한 이를 일깨워서 보시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요, 나쁜 소견을 지닌 이를 조복하여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다른 이를 평등하고 가깝게 거두어 주며 서로 친근히 하면서 따르게 하는 일을,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라 한다.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

먼저 말 건네고 안부 묻고 걱정해 준다면 일가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겁니다

용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찬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수 장자여, 너는 진리의 가르침에 적합하게 사람들을 잘 이끌어 들였구나. 만일 누구든지 법담에 사람들을 끌어 들인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4법법을 실천한 것이니 줄 알아야 한다.”(중아함 수장자경)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나 법문에서 자주 들었던 ‘4법법’이라는 법문이 바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네 가지 방법’이란 것입니다.

<아비담마집이문족론>에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풀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수행자나 가난한 이에게 음식과 약과 옷 등의 필요한 물건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베풀음으로 다른 이를 평등하게 거두어 주고 가까이 거두어 주며 가까이 지니고 서로 친하게 따르는 것을, 베풀어서 거두는 일이라고 한다.

사랑이 담긴 말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기뻐할 만한 말· 재미있는 말· 얼굴을 펴고 평온하게 보면서 하는 말·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하는 말· 웃음을 머금고 상대방보다 먼저 건네는 말· 상대방보다 먼저 인사하면서 위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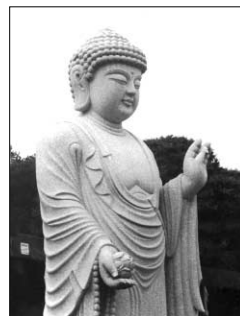
이란, 생명을 해치는 일과 도둑질, 음욕, 거짓말, 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일을 지극히 싫어하지만 친구와 함께 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로써 다른 이를 평등하고 가깝게 거두어 주며 서로 친근히 하면서 따르게 하는 것을,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라 한다.”

먼저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친척들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며 걱정해주는 일, 핵가족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서는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데도 혹시 가족들이 멀어지고 흩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음 명절에는 일가친척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니 집안에 가득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 주부의 입장에 서야 허리가 휘어지는 일이지만 버림받더라도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이 수북한 집안이 좁다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내 피부들이 화목해고 그 사랑이 낯선 이웃으로 변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명(중국역경원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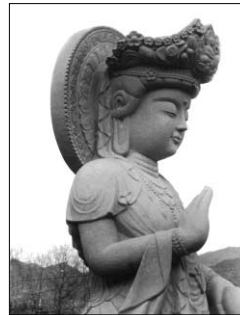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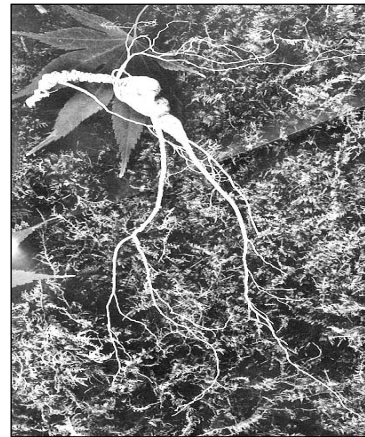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양”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자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증, 뇌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소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능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시 새움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願望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勿論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리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식물은 本草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원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호 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조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서 나오는 것이야. 내 것이라 할 게 없는데 감을 게 뭐 있겠어. 나를 드러내니까 자연스럽게 양명도 되는 것이고, 굳이 나를 위해 따로 뭘 할 것도 없어. 이런 마음 바탕이 갖춰진 후에야 모든 게 차근차근 이뤄지는 것이야.

일단 무소유란 마음을 가지면 남을 구하겠다는 자비심, 보살심이 저절로 생기게 돼. 내 것이 없는데 남과 다를 일이 있겠어? 남이 어렵다면 당연히 도와야겠지. 이렇게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 남을 구제하겠다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사람들의 화합을 깰 틈이 없지.

불교는 하나만 알면 다른 것도 저절로 알게 돼 있어. 무유정법, 무소유, 자비심, 보살심이 모두 하나의 원리에서 나온 거야. <금강경>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불교의 모든 이치를 깨칠 수 있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무소유는 보살심의 뿌리

예전에는 스님들이 이런 것을 알아도 실천은 못했어. 자비란 말은 들어도 그걸 실천할 길을 찾지 못했고 포교란 말은 들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만큼 현실에서 멀어진 불교였던 거야. 내가 몇 십 년 전부터 고아원, 복지관, 납골당을 세웠던 것은 경전 속의 '자비'가 곧 오늘날의 복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요새 보니가 우리 스님들이 세상에 대해 눈을 조금씩 뜨는 것 같아. 복지를 생각하는 스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야. 스님이라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절을 만들어야해. 세상이 점점 물질로 흐르면서 흉악한 일이 많아지잖아. 스님들이 복지란 일 하면 도둑놈 살인자가 엄청 나오게 돼 있어.

스님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무조건 데려가 키워야 해. 그들을 받아들이서 가르쳐야 해. 보불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식 유학을 시키기 어렵지만 우리 스님들은 쉽게 할 수 있어. 미국이고 어디고 다 같이 있으니 그곳으로 학생들을 보내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불교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드물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게 다 포교이고 불교 복지 아니겠어? 포교는 종파며 문종이며 승속을 떠나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야. 포교와 복지를 연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어. 부디 명심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배웠으면 남을 위해 회향하려고 노력하길 바래.

올해에는 불자들이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



천운 스님은 중생과 하나가 돼 함께 호흡할 때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교 포교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 불교하면 '구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한국의 좋은 문화가 다 불교에서 나온 거야. 한의학이며 국악 같은 것도 중생을 구제하려고 큰 스님들이 발전시키고 퍼뜨린 거야. 괜히 좌절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불교를 신식으로 바꿔놓겠다. 내 손으로 불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

이런 일 하기 위해 제발 헛된 욕심은 버리지 말아. 돈 두고 죽은 몸을 내가 여럿 봤어. 돈 때문에 전부 분장만 일어났어. 요 근래도 문제가 터진 거 봤지? 대단하더구만. 죽을 때 사체에 다 내놔야 해. 부처님 말씀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 무소유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비 실천 복지에서 찾아야

요새 환경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니 스님들이 불사를 하긴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수행자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욕먹어서는 안 되겠지. 그러려고 하면 불사를 하기에 앞서 스님들 사이에서 수행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해. 여법하게 수행을 하면서 불사를 하면 과욕을 안 부리게 되지. 수행자가 속인과 똑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 아니까? 수행과 스님은 하나가 돼야 해.

출가를 해서 강원에서 공부했더니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중 하나 이상은 통달해야 할 거야. 그래서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법문을 해야 불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무슨 소용이겠어? 중생을 위한 부처님이란 상이 바르게 세워져야 해. 수행자, 특히 스님이라면 중생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중생과 하나가 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어야 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스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요새 선지식 중에는 중생들이 읽기 어려운 책을 억지로 퍼내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잘못이야. 몇 명이나 그 책을 읽겠어. 어지간해서 못 읽어볼 책 은 돈 들여 내는 게 아니야.

이제 새해야. 무엇인가 시작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작심(作心)을 하는데서 비롯되는 거지. 유시유종(有始有終)이기 때문에 무시(無始)면 무종(無終)이야. 시작의 의미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있는 거야. 율 한해 저마다 할 일이 많겠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열매 될 것자의 묶도 다른 법이야. 그래서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모두들 초발심으로 돌아가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보살임을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법이야.

정리=강유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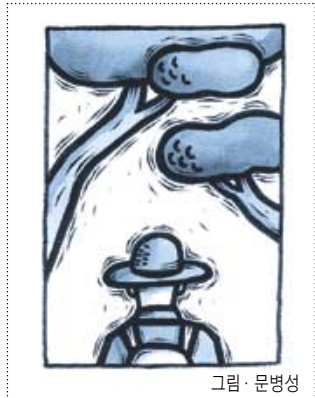


지연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호 스님

법명도 참 특이한 도호(島湖) 스님은 1975년 속리산 법주사에 입산했다. 십 여 년, 그의 말대로라면 강호(江湖)를 떠돌다가 강원도 삼척의 풍곡이란 곳이다 산호정사(山湖情舍)란 토굴을 창건했다.

산천어가 노니는 물 맑은 계곡을 끼고 있는 그곳 토굴 산호정사에서 스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재법 높은 언덕밭이에 위치한 산호정사 앞뜰에 이십 년 째는 되었는데 소나무 가지 위에도 판자쪽을 엮어 매어놓고 그 위에 올라 앉아 까마득히 내려보이는 계곡을 응시하며 한 나절을 보내곤 하는 사람이 바로 도호 스님이다. 그는 한 마디로 괴짜다.



그림·문병성

도호 스님, 그는 괴짜답게 행적도 남다르다. 글 쓰기를 좋아하여 <정천한해(情天恨海)>란 특이한 이름의 시집을 자비(自費)로 출판하고 그 시집을 몇 해 후에 증보하였으며 얼마전엔 <시로 읽는 무원천하(武林天下)- 우주는 어쩌면 눈물 한 방울>이란 긴 이름의 명상집을 내기도 했다.

빛소리

우독커니
오두막집 마루 구석에
취어져 취어져 놓은
결레같은 외로움
.....
미친년 머리카락 숲에
이나 잡소리.

시 같기도 하고 무순 법이 같기도 하고 허튼 소리 같기도 한 이런 류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한 뒤 스님은 배낭에 걸방에 그 시집을 몇 권씩 넣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혹시, 가문에 콩 나듯이, 책을 보시받은 누군가가 책값을 건네줄라치면 그는 아주 좋아하며 공

손하게 합장하곤 했다. 속이 답답해지면 그는 몇 가지 웃음 곁말에 넣어 짙어지고 강호유랑 길에 나선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아다니다가 그러한 유람인지 방랑인지가 끝나면 그는 그제야 거처인 토굴 산호정사로 연기 스며 들 듯 스며들어 기나긴 휴식에 들어간다.

죽음보다 깊은 잠이요, 죽을 같은 기나긴 휴식에 들어가 한참동안 깨어날 줄 모른다. 꿈이 겨우 잠에 빠지듯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잠재운다.

도호 스님, 근간에 퍼 낸 명상집에서 이처럼 한 스런 절구를 내뱉고 있다.

독자여,
어여뻐 받아들주소서.
오, 끝없는 생사의 길, 저마다 비뚤은 눈물을 감추고 살아가는 요즈음 시대에 차라리 지구를 절구통에 넣어 박살이 나도록 짙고 또 짙어 허공에 뿌려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을 어찌하오리까?
독자여,

자비로 낸 시집 결방에 담긴 만행길에 무료로 나눠줘

나의 형제 오오, 나의 동료들이여,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공연히 소리 높이는 이 허약한 중생의 잠꼬대를 대자대비로 굶어 살피 주옵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독자들에게 주는 글 후기에서 이런 한스런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런 그가 이제 그의 말대로의 강호유랑을, 방랑을 끝냈는지 어쨌는지 몇 년 전부터는 아주 작심하고 여름 하안거와 겨울 동안거를 따지지 않고 꼭 선방에서 보내고 있다.

하안거를 지내고 동안거를 지내고 난 끝없는 어김없이 토굴 산호정사로 연기처럼 스며들어가서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혹은 허물어진 담장을 고치고 혹은 씻겨져 나간 뒷발을 손보고, 그러면서 그만의 보금자리에서 혼자 머문다. 꿈의 한 겨울 기나긴 동면처럼 저 혼자 그렇게 지낸다. 그런 그가 어떨 때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척이나 자유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오면 겨울 안가는 덕숭산 수덕사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방부 다 들여놓고 왔어요..."
만사태평이란 뜻 그는 하듯말을 머문 뒤 이 말을 하고 떠나갔다.

천바람 부는 이 겨울밤에 그는 깨어 일어나 있을 것이다. 깨어 일어나 덕숭산 자락을 훑고 지나가는 때서운 바람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의 끈질기고 한스러운 고뇌가 이제 그 나라를 잡고 안받침하기를 바란다.

■ 문화 청량사 주지

인재 양성에 한평생... 고아 200여명 자식처럼 길러

천운 스님은 천운(天雲) 스님은 '인재를 기르는 분'이란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스님이다. 40년 동안 200여 명이 넘는 고아를 자기 자식처럼 돌본 것, 교육사업에 헌신을 다한 것만 보더라도 인재 길러야 하는 스님의 각박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스님의 손길을 거쳐 간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와 한국불교의 튼튼한 대들보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화엄사 주지 당시 36명을 동시에 출가시킨 일을 늘 자랑삼아 말할 정도다.

그 때문에 성철 스님으로부터 "내가 '중' 만드는 공장'이나'는 '꾸중' 아닌 '꾸중(?)을 듣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도 들려주신다.

스님의 인재 길러는 마음은 스승인 지암 스님의 가르침에서 유래했다. 지암 스님은 나라를 잃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믿었다.

지암 스님이 유학을 보내준 백성욱, 김법린 박사 등은 훗날 한국불교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 역할을 했다.

천운 스님은 광주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불교대학, 어린이집, 신협 등 10여개 시설, 해남 목포까지 합치면 20여개가 넘는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현재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이 언제나 '현역'이다.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 전남도청불자회장 등도 맡고 있다.

천운 스님은 1930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47년 지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56년 지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송광사 용암사 도감사 등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구메 화엄사 해남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과 해남 대흥사 조실로 계시면서 항림사에 주석하고 있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꽃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꽃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순환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 기능 정상화 / 신장조음, 관음염, 염염, 원기회복에 기여

기원전, 천식, 기침의 원안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 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 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꽃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꽃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율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꽃조청**은 국내산 무공해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송이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은 6년근 이상의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금용사**
054-372-5721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성희 (산사 참꽃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정월방생 황금잉어

신가 불법승 상보님께 귀의 합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스님께 업드려 삼배 올립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며, 우리나라의 어느 하천에서도 더 어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잉어과의 황금잉어입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 행실도, 신의심, 등용문, 한국인형 등 많은 곳에서 잉어가 길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금번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가 필요하신 대중스님들께서 연락 주시면 전곡 어디나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유통비용은 별도 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H·P 018-690-4985

사찰 연등 및 전선(별당용)
불지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101 분리형

102 일체형

불지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라덴트가 6배 (특 할라덴트)로 빛이 율등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구역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문단등), 영기등, 오색등, 형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